

리비아 油田 개발사업 참여, 油公 加·英社와 공동

油公은 캐나다 판캐나디언社 및 영국 클라이드社와 공동으로 리비아 육상 광구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5월 27일 발표했다.

유공은 10%의 지분으로 이 사업에 참여, 판캐나디언(75%), 클라이드(15%)등과 합계 탐사 5년을 포함해 30년간 개발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난 92년부터 리비아 북동부 3개 육상광구 유전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번이

이 나라에서 네번째 사업이다. 유공 관계자는 이 광구 인근에서 현재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 원유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유공은 현재 원유를 생산중인 예멘의 마리브광구를 비롯 8개국 13개 광구에서 유전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 베트남 페루등 유망지역의 신규광구 참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앙골라지역 대규모 유전개발, 대우·유개공, 佛토탈사 공동

(주)대우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프랑스 토탈사와 공동으로 탐사중인 아프리카 앙골라 유전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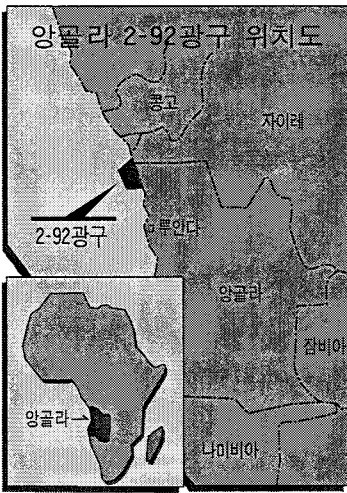
유가 발견됐다고 통상산업부가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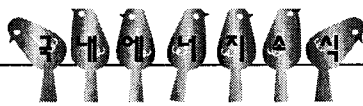
지난 5월 20일 통산부에 따르면 (주)대우등은 지난해 말부터 앙골라 북서 해상 2-92 광구에서 3개의 시추공을 뚫은 결과, 지난 4월 2번째 시추공 지하 3천 8백m지점에서 양질의 원유가 발견된 데 이어, 최근 2차공에서 실시한 간이 생산성시험(DST)에서 하루 최대 9천 1백50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주)대우는 유전개발 초기 이지역의 전체 매장량이 1억 2천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2차공에 대한 간이생산성시험 결과, 추정 매장

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전개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예멘마리브 광구는 원유발견 당시 생산시험에서 하루 최대 8천배럴이 산출됐으나 현재는 16만 8천배럴이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서부 앙골라 북서 해상 콩고분지에 위치해 있는 이 광구의 지분은 운영권자인 프랑스 토탈사가 40%로 가장 많으며, (주)대우와 석유개발공사가 각각 18.75%와 6.25%,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나폴이 2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사가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수소 냉매 냉·난방장치 개발, CFC대체 환경문제 해결 기대

공해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CFC(염화불화탄소)대신 수소를 냉매로 하는 새로운 냉·난방장치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전연구부 姜炳夏박사팀과 백러시아 민스크 소재 열 및 물질 전달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소를 냉매로 하는 열구동 수소 흡장식 냉·난방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92년부터 3년여에 걸쳐 2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이 냉·난방장치는 수소가 금속수소화합물과의 반응과정에서 열을 발산하거나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CFC나 HCFC(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수소로 대체, 환경문제를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가스나 태양열 등의 낮은 열로도 구동이 가능한 열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력소모량이 많은 여름철에 전기 대신 가스를 사용해 일반가정에서 냉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름철 전력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형 냉·난방장치에서 진동 및 소음의 원인이 되어온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소음기기를 실현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일본의 산요, 미국의 아르곤연구소 등에서 같은 연구가 수행돼 왔으나 열손실이 많고 열전달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 실험결과 냉·난방성능이 20~30% 가량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정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북한산 국립공원 해발 400m 지점

서울시는 내년부터 98년말까지 시내 청정지역 및 고공지점 등 3곳에 모두 18억여원을 들여 대기오염측정소와 지구환경측정소 5개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내년중에는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내 소귀고개 해발 400m지점의 청정지역에 3억 8천만원을 들여 청정지역 대기오염 무인측정소를 들 계획이다.

이 청정지역 측정소에 이산화탄소와 오존, 아황산가스 등

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풍향·풍속·습도등의 기상여건 및 강우 산성도를 잴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시내 서울타워나 63빌딩, 강남무역센터 등 고층건물 중 1곳을 선정해, 높이에 따라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무인측정소 2개를 설치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 청정지역과 도심 고공지점에 대한 오염측정소

설치를 위해 일본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해 설치방법 및 운영기술을 습득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98년에는 도심에 위치한 기존의 대기오염측정소 1곳과 청정 및 고공지점에 설치한 측정소등 모두 3곳에 9억 3천만원을 들여 프레온가스와 이산화질소 등 지구온난화 현상을 측정·감시할 수 있는 지구환경측정망도 들 계획이다.

완벽한 태양열주택 등장, 지붕·벽등 모두 태양전지 이용

지붕자체를 태양집열판으로 마감하고, 벽체와 창문까지도 태양전지로 만드는 완벽한 “태양주택”이 곧 등장한다고 과학잡지 파퓰러 사이언스가 최근 전했다.

최근 미국 메인주에는 지붕을 태양집열판으로 한 최신형 태양열 주택이 지어졌다.

건평 2백50㎡에 지붕 넓이만 80㎡인 이 주택은 집을 완공한후 태양전지를 지붕위에 올려놓는 기존태양열주택과는 달리, 지붕자체를 아예 특수 태양전지 패널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인공위성에 쓰이는 다결정 셀(Cell)로 만든 이 태양전지 패널은 심한 우박등에도 견고하게 버틸수 있는 고강도이며,

주인은 기존 주택 건설비보다 15%만을 추가로 지불했을 뿐이다.

태양전지 패널 밑쪽은 공기가 흐르도록 돼 있다.

겨울철엔 데워진 공기가 집안으로 순환하면서 집안 공기를 데운다. 패널은 두부분으로 나뉘어져 반쪽은 전기만을 생산하고, 반쪽은 온수를 만드는 데 이용토록 설계됐다.

최근엔 값비싼 다결정 셀 대신 유리같은 값싼 재료를 사용한 박막 셀도 개발되고 있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올 2월 미국에서는 성능을 15%이상 개량, 다결정 셀에 비해 집열도가 2~3%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박막셀도 발표

됐다.

실험실 차원이지만 외부벽체의 바깥에 태양전지를 입히거나, 각종 창문과 채광창등도 태양전지 패널로 만드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연구들이 태양의 이용 효율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추가경비를 줄여 태양주택의 보급률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전지 패널을 지붕과 창문의 마감재로 사용한 예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선 박막형 태양전지 패널을 만든 시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풍력發電 본격 추진, 2007년까지 1백46MW 확보

풍력을 이용,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클린에너지토피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6월 3일 제주도에 따르면 90년이후 도내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12.7%로 전국 평균증가율 7%를 훨씬 웃돌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00년까지 매년 40MW이상 발전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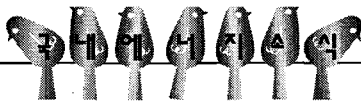
제주도는 이에따라 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2007년까지 풍력발전 위주의 클린 에너지토피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1차로 6억원을 들여 도내 4곳을 선정, 풍력자원을 조사한뒤 최적지에 2백 40kW의 풍력발전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22억원을 들여 5개소를 대상으로 풍력자

원을 조사, 8백kW용량의 풍력 발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 계획이 달성되면 올해의 경우 제주도내 총전력설비 3백46MW가운데 풍력발전 설비는 0.5MW에 불과하나 2000년에는 총전력설비 5백16MW가운데 5.2MW, 2007년에는 총 9백14MW중 1백46MW로 풍력발전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 



21세기 해양개발 기본계획안 확정, 꿈의 선박 초전도추진선 건조등

한국기계연구원이 내년부터 2005년까지 총 1백55억원을 들여 21세기 꿈의 선박으로 불리는 초전도전자 추진선을 개발한다.

또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 및 기계연이 내년부터 2억 원을 투자해 방조·방파기능 개선을 위한 발전소 구조물 설계기법을 개발하는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까지 7천3백44억 원을 들여 48만kW급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정부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존에 필요한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지난 1월 8대시책을 골간으로 발표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실천방안인 해양개발시행계획안이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과기처가 외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해운항만청·수산청등 12개 해양관련 부처의 사업계획을 종합해 만든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해양 관련 부문에 2조5천3백51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대형 부유물을 이용한 해상 발전·담수화 플랜트 개발(기계연 및 해양연),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경상남도), 최적구난 및 해상안전 기반기술(기계연), 해양오염방제 역량

증진을 위한 방제정·유회수기·폐유 바지선 구입(해양경찰청), 적조예방을 위한 연구(국립수산진흥원), 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영(해양연 및 기상청), 국가해양 기본도 제작(해양연 및 건교부 수로국), 해양목장화설비개발(해양연) 등이다.

이 계획안은 97년 각 부처, 청의 해양관련 투자에 4조 8백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해난 사고 예방 및 구난체계 구축 사업 17억원(과기처), 해양환경 자동감시시스템 29억원(수산청)등도 포함됐다. ☞



금년 9월부터 청정연료 사용확대, 서울 전용면적 18평이상 공동주택

오는 9월부터 서울의 전용면적 18평이상 공동주택과 인천 경기지역의 21평이상 공동주택, 부산과 대구의 공중목욕탕에서는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7일 대기오염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LNG, LPG, 경유 등 청정연료 사용대상을 9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전용면적 21평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에서 9월부터는 18평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등 수도권지역 13개 시에서는 전용면적 25평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에서

21평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청정연료 의무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부산과 대구지역은 목욕탕등 0.2t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무용 빌딩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연료별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경유는 벙커C유의 10분의 1, LNG와 LPG는 1백분의 1에 불과하다. ☞

爐心溶融 안전성개념 획기적 전환, 새로운 이론정립 세계적 관심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로 꼽히는 爐心溶融에 대한 안전성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이론정립이 국내에서 진행중이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노심용융사고시 고온의 핵연료 노심이 원자력 벽을 뚫고 나가 방사능 누출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이론을 정립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타”로 이름붙여진 이 실험프로젝트는 노심용융과 같은 원전의 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높은 온도의 핵연료 물질과 원자로 용기간의 물질

차이로 1mm정도의 좁은 간격이 생겨 이 틈으로 냉각수가 유입돼 핵연료물질이 원자로 용기를 뚫고 나가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오는 2002년까지 2백억원을 투입,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원리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면 현재의 안전성 심층방어 조치중 일부가 불필요하게 될 뿐만아니라 격납건물 설계에 있어서도 보수 및 설계변경 등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발전의 단가절감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 프로젝트 소요경비 중 절반인 1백억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회원국등 선진국에서 마련키로 하는등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는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OECD 국제 공동연구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국, 유럽 몇나라만이 독점해 오던 원자력 기술시장의 중심이 아시아지역으로 옮겨 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中國에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지역난방공사 · 한보 공동

최근 한보에너지와 지역난방공사는 중국 河北省 秦皇島 경제기술개발구 총공사와 합작으로 총공사비 2천 9백80만 달러를 들여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중국현지에서 합작계약서 초안에 합의했다.

한보는 6월 18일 이들 업체와 본계약을 맺고 내년 1월에 후보일터 3기와 12MW급 터빈

2기, 보조보일러 등의 건설에 착수해 오는 9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합작은 한보에너지가 전체의 20%인 5백96만달러, 지역난방공사가 30%인 8백94만달러, 중국측이 50%인 1천4백90만달러를 각각 투입하는 조건으로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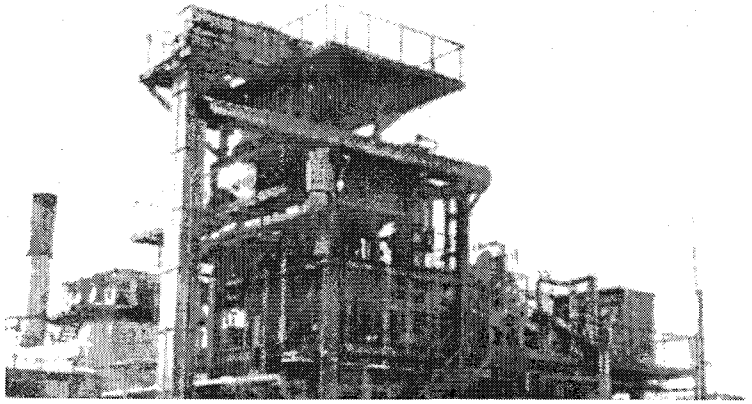
한보측은 이 열병합발전소는 20년간을 사용기간으로 잡

아 임차한 3만평의 부지에 건설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에 오는 2015년까지 공급된다고 말했다.

2015년이후 열병합시설 등 고정자산은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 총공사측에 넘어가고 나머지 자산은 합작비율대로 나누게 된다고 한보측은 덧붙였다. (☞)

廢플라스틱에서 原油 추출, 유화환원장치 국내 도입 예정

플라스틱류를 비롯, 자동차 타이어, 범퍼, 건설폐자재 등 석유화학제품을 불과 몇초만에 나프타를 비롯해 등유·경유·가솔린 등 원자재 물질로 환원해 환경오염 해소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화환원장치(POCS)가 국내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정신과학연구원과 프라임산업(주)이 도입할 예정인 이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열화비닐, 폴리에틸렌, 아크릴 등 각종 폐플라스틱류를 섭씨 2백50도 대기압에서 순식간에 완전자동으로 처리해 원료와 가스등으로 재생하며, 장치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자체 생성된 연료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적다는 것이다. 이 장치의 개



사이타마시에 건설돼 하루 40t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있는 POCS 플랜트

발자 구라타 다이시(일본이화학연구소장)박사는 “동양 사상 및 철학의 기본개념인 기(氣) 이론중 하나인 파동에너지이론을 바탕으로 이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신과학연구원측은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전시장을

겸한 소형 플랜트를 설치하고 일부지방자치체와도 폐기물처리용으로 설치작업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94년 기준 연간 2백40만t으로 이중 약 10%인 25만t만이 재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

浦鐵, 폐수무방류시스템 2000년 도입, 영종도에 이어 2번째

포종합제철이 오는 2000년까지 내보내는 폐수 전량을 다시 쓰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포철은 98년까지 1단계로 하루 1만t의 폐수를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을 갖추어 발생 폐수의 25%를 공업용수로 다시 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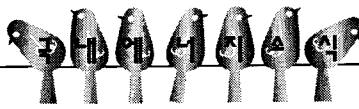
이어 2000년까지는 하루에

나오는 폐수 4만1천t을 모두 재활용해 폐수가 한방울도 하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포철은 폐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갖추는데 8백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규모 폐수 배출업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포철이 영종도 새공항 (인천

국제공항)에 이어 두번째이다.

포철은 현재 영천댐에서 하루 9만7천t의 물을 받고 있으나 중수도 설치가 끝나면 그양을 5만이하로 줄여, 포항지역 용수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영천댐 물을 금호강으로 흘러 보낼수 있어 금호강의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차세대 청정연료 큰 관심

미래 청정에너지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열기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차세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태양광·태양열·풍력에너지와 더불어 수소에너지 기술을 상용화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연구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수소가 미래의 궁극적인 대체에너지원 또는 에너지매체로 꼽히고 있는 것은 현재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원이 따를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소는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가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직접 연소를 위한 연료 또는 연료전지등의 연료로 사용이 간편하다.

또 무한정인 물을 원료로 해 제조할 수 있으며 가스나 액체로 쉽게 저장 수송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산업용 기초소재에서부터 일반연료 자동차 비행기 연료전지등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돼 미래의 에너지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각국에서는 지난 70년대 말부터 수소의 제조 저장 이

용등 분야별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개발 군사용등 특수분야에 실용화 기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일본은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뉴선사인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WE-NET프로그램등으로 관련연구의 국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대체전원으로부터 수소의 제조와 저장, 그리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보일러 수소자동차등에 이용하는 수소 에너지 시스템기술 실증플랜트를 설치 운영하는 등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관련기초연구에 착수, 현재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기술연구소등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경우 열화학법에 의한 수소제조 등 관련기초 연구를 수행한데 이어, 현재 고분자 전해질에 의한 물의 전기분해 기술, 고성능 니켈-하이드라이드(Ni-MH)전지용 전극활물질 소재 개발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소는 이같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종합 수행키 위해 오는 2010년까지 5년 단위의 3

단계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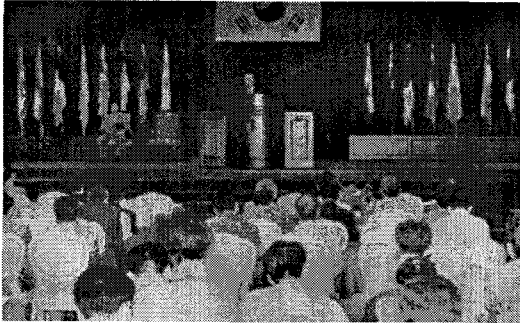
이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수소의 제조 저장 수송 이용등에 관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2005년까지 실용화 기술개발, 그리고 2010년까지는 상용화 기술개발을 마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수행키 위해서는 1단계 1백억원, 2, 3단계 각각 1백90억원씩 총 5백40억원가량의 연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전환연구부 신연료연구팀의 沈揆聖박사는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의 20%선에 머물고 있지만 선진국 역시 아직은 개발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투자가 뒤따른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술격차를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沈박사는 또 “수소에너지는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우주개발 군사용 등 특수목적에 한해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21세기 중반에는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자립을 위한 토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수립 공청회, 2010년 세계 3대 원자력국 성장



鄭根讓과기처장관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 능력을 세계 3위권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중 액체금속로 핵융합로등 미래형 원자로의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경·중수로연계핵연료주기(DUPIC)기술을 개발하는등 원자로기술 및 비핵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역량을 다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원자

과학기술처는 지난 5월 27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선인 원전설비 구성비율을 2010년까지 총발전설비용량의 40%수준으로 제고하는등 원자력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3위권의 원자력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해

력 연구개발투자를 선진국수준인 국민총생산(GNP)의 0.1%선으로 제고, 앞으로 10년간 3조7천억원 규모의 관련연구개발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나갈 방침이다.

경수로를 주축으로 중수로를 보완하는 노형전략을 유지하면서 차세대원자로, 다목적중소형로, 액체금속로(고속중식로)를 개발하는 한편, 핵융합로 기반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용후 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의 감용기술을 개발, 원자력발전소내 임시저장능력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분장 건설은 2010년이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을 수행, 세계 3대 원자력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6년까지 매년 21%씩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예산을 늘려 3조7천8백억원을 확보, 2010년까지는 국가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총액을 GNP대비 0.1%선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태안화력발전 1·2호기 준공 서해안 전력공급 중추역 기대

서해안 지역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태안 화력 1, 2호기(각 50만 kW급)가 지난 5월 29일 준공됐다. 지난 91년 착공된 한국 표준형 석탄화력 발전소인 태안 1, 2호기는 최근 미국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지인 POWER誌에

서 “96년 세계 우수발전소”중 하나로 소개한 최첨단 발전소이다.

기술자립도가 95%인 이 발전소는 열효율이 국내 화력발전소중 가장 높은 41.4%로 기동, 정지 및 출력변동을 모두 자동처리하는 고도의 제어기능과 신

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3만8천개소의 용접을 마무리한 후 수압시험에서 단 한차례도 결함을 보이지 않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총공사비 1조 2천 9백억원이 투입된 태안 1, 2호기의 설계기술용역은 한국 전력기술이, 토건공사는 현대건설이, 주기기공급 및 기전공사는 한국중공업이 담당했다. ☞